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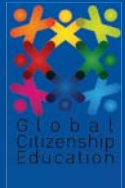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연구진 | 한경구, 김중훈, 이규영, 조대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 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연구진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김종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 이규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조대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연구보조원

- 김지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 전문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연구진 |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는 사회 구조와 문화부터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초월한 전방위적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빈곤, 전염병 등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관용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평화, 인권, 정의, 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과 같은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들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의식을 지닌 책임 있는 세계시민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오늘날 교육의 역할과 목적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통, 협력, 창의력 및 실천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영역의 비인지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통해 지구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글로벌 교육목표로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기존 목표인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향상’에 더하여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은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로 부상했습니다.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인천선언’에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명시되면서 앞으로 15년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새로운 교육의 비전이자 정책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화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전 지구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형성됐음을 의미하며,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 달성에 세계시민교육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다문화 사회로의 진전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한반도 국제 정세의 변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학벌주의 등 국내의 사회 및 교육 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15번째 GEFI 핵심 지원국(GEFI Champion Country)에 가입하는 등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확산을 주도해 왔으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세계 시민교육의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세계시민교육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보고서가 새롭게 떠오르는 교육 패러다임의 발전과 국내 교육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의 교육 외교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9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우탁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다문화 사회로의 가속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 구조의 변화, 주변국들과의 외교 갈등 등 기존의 시민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시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비전의 관점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5년 이후 교육의제로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먼저 세계화로 야기된 시민사회와 시민, 시민성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를 짚어보았다. 이어 세계시민사회, 시민성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역사 및 최근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한 세계 공동체 구현을 도모하면서 현대와 지구사회를 선순환 경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Post-2015 교육의제 형성과정과 <2015 세계교육포럼>의 결과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수립 방향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인지 역량에서 비인지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Post-2015 교육의제 논의과정에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①세계시민교육의 현황 파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연구 ②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교재의 개발·보급 ③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④세계시민교육 청소년/청년 교류 프로젝트 개발·적용 ⑤시민사회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제안했다. 이들 5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본 연구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세계시민교육과 발전교육의 통합적 추진이다.

결론적으로, <2015 세계교육포럼> 유치국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한국발 교육의제로 공고히 하고 2015년 이후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와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기획 및 토대 구축 → 세계시민교육 정책 추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세계시민교육 성과 1차 종합평가 및 수정·보완 → 세계시민교육 성과 확산' 등 4단계로 구성된 로드맵을 예시로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민간기업, 미디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모두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제도 부문에서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과 같은 역량 있는 전문가를 세계시민교육 전담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및 파트너십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산 부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흥·발전시키기 위한 특별기금인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시설과 인프라 부문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 체험숙박형 연수관을 건립해야 한다. 넷째, 사업 부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맡은 전문기관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인력 부문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효율적·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Contents

I . Post-2015 세계시민교육정책 방안의 필요성

- 15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MDGs, GEFI 그리고 Post-2015
- 19 2. 한국의 교육정책과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 22 3. 보고서의 목적 및 활용 방안

—

II . 세계시민사회, 시민성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 역사와 쟁점

- 25 1. 세계시민사회와 시민성
- 30 2. 국내외 세계시민교육의 연구 동향
- 37 3.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핵심 역량

—

III . Post-2015 교육의제 형성과정

- 45 1. Post-2015 교육의제 수립의 방향과 원칙
- 51 2. Post-2015 교육의제에서의 세계시민교육
- 55 3. Post-2015 세계시민교육 의제 형성과정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

IV . 세계시민교육정책 방안 : 5대 핵심 정책

- 63 1.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파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연구
- 72 2.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교재 개발·보급
- 83 3.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88 4. 세계시민교육 청소년/청년 교류 프로젝트 개발·적용
- 98 5. 시민사회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적용
- 105 6. 세계시민교육과 발전교육의 통합적 추진

V. 세계시민교육정책 추진 체제 및 정책 제언

- 109 1. 세계시민교육정책 추진 체제
- 115 2.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124 참고문헌
- 130 Abstract

—

표 목차

- 33 <표 II-1> 세계시민교육 관련 기관의 사업 내용과 유형
- 39 <표 II-2>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비교
- 54 <표 III-1> 글로벌 EFA 회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실무그룹 교육목표 비교
- 113 <표 V-1> 세계시민교육 관련 기관 역할 예시
- 117 <표 V-2> 세계시민교육 전담 허브로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역할

—

그림 목차

- 48 [그림 III-1] 모두를 위한 교육목표와 새천년개발목표의 상관관계
- 50 [그림 III-2] Post-2015 교육의제 형성과정
- 51 [그림 III-3] EFA 목표와 GEFI의 상관관계
- 111 [그림 V-1] 세계시민교육정책 로드맵
- 112 [그림 V-2] 세계시민교육정책 추진 체제



I

Post-2015 세계시민교육정책 방안의 필요성



© UN Photo/Evan Schneider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MDGs, GEFI그리고 Post-201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단일국가에 기반하는 국가 시민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촌 사회의 문제해결과 공생방식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세계시민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세계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유네스코는 태국 파타야 쏘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세계교육회의〉를 개최해 유아, 초등, 문해(文解), 기술 교육을 아우르는 범세계적인 기초교육운동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 기초교육운동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보편교육의 확대, 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확대, 문해 능력 향상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이런 EFA 초기 목표는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다카르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으로 발전하였고,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더불어 보편교육의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강령이 되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출범된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은 이런 양질

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오던 기존 국제사회의 교육운동에 의미 있는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GEFI는 MDGs 및 EFA와 깊이 연관돼 있지만, 이전의 유엔 교육목표와의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GEFI로 인해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방안 탐



© APCEIU

색이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교육의제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교육의 역할과 목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우며,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유네스코는 학습자가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



계시민교육을 2014년 이후 8년간(2014~2021)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이전의 EFA 교육목표와는 다른 새로운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과 같은 교육의제와 그 내용을 달리 한다.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진국을 포함한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하며 범세계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의제는 모든 교육발전 및 교육협력의 중심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5월 인천에서는 <2015 세계교육포럼>이 열렸다. 여기서 채택된 ‘인천선언’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명시되었다. 이 당시는 2015년 이후 개발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설정과정에서 선의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어느 나라가 세계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지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 때마침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은 주최국인 한국에게 교육 강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의제 설정의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2-

한국의 교육정책과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APCEIU

21세기 한국 사회와 한반도 국제 정세의 변화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배경 요인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글로벌·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진전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라는 사회문제와 맞물리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삶의 질과 깊숙이 관련된 중요한 변화의 양상이 됐다.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인종·민족·문화의 다양성 심화는 단일국가 개념에 기반한 기존의 학교 시민교육의 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또 북한의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남북한 통일 문제, 주변국들과의 외교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학교 시민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입시 위주의 문제 풀이식·주입식 교육, 학력만능주의 교육, 학벌주의 등의 교육 특징을 보이는 학교교육의 현주소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인과의 사회



© APCEIU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 청소년과 시민의 육성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 교사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한국 시민교육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능동적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며, 21세기 글로벌·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의식과 시민교육 모델의 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런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꿈과 끼를 키워드로 하는 ‘행복교육’ 비전은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포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최근 교육부가 강조한 창의인성교육, 융복합교육, 통합교육과정, 통일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정책 키워드를 관통하는 연결 고리이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주입식 교육의 현실을 벗어나는 데 있어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정책적 대안임이 틀림없다. 다양성과 공생의 가치를 출발점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학습자를 능동적인 교육 주체로 설정하고, 과정 중심적·문제해결 중심적·참여지향적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국 학교 시민교육과 차별화된다.

둘째, 토론과 체험 및 실천지향적인 수업에 적합한 혁신적인 세계시민교육의 강점은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새롭게 시도 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활동을 전 학년에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류 등 지역적·세계적 이해와 연대를 토대로 하는 교육협력 활동에 가장 유리한 접근방식이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한반도 통일방안 구상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지적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제공에도 효과적이다.

3-

보고서의 목적 및 활용 방안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비전인 ‘행복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교육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역사 및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Post-2015 교육의제로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정책과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대 효과와 활용방법을 담고 있다.

첫째, 본 보고서는 21세기의 가장 커다란 교육행사인 <2015 세계교육포럼> 유치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시민교육을 한국 주도의 유엔·유네스코 교육의제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Post-2015 교육의제 설정자와 세계시민교육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교육 외교 리더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 의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간의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이 협력과정은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외교적 공론의 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이 저개발 국가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존의 교육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정책 방안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국내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접근법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교사교육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며, 행복교육과 창의인성교육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세계시민사회, 시민성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역사와 쟁점



1-

세계시민사회와 시민성

세계화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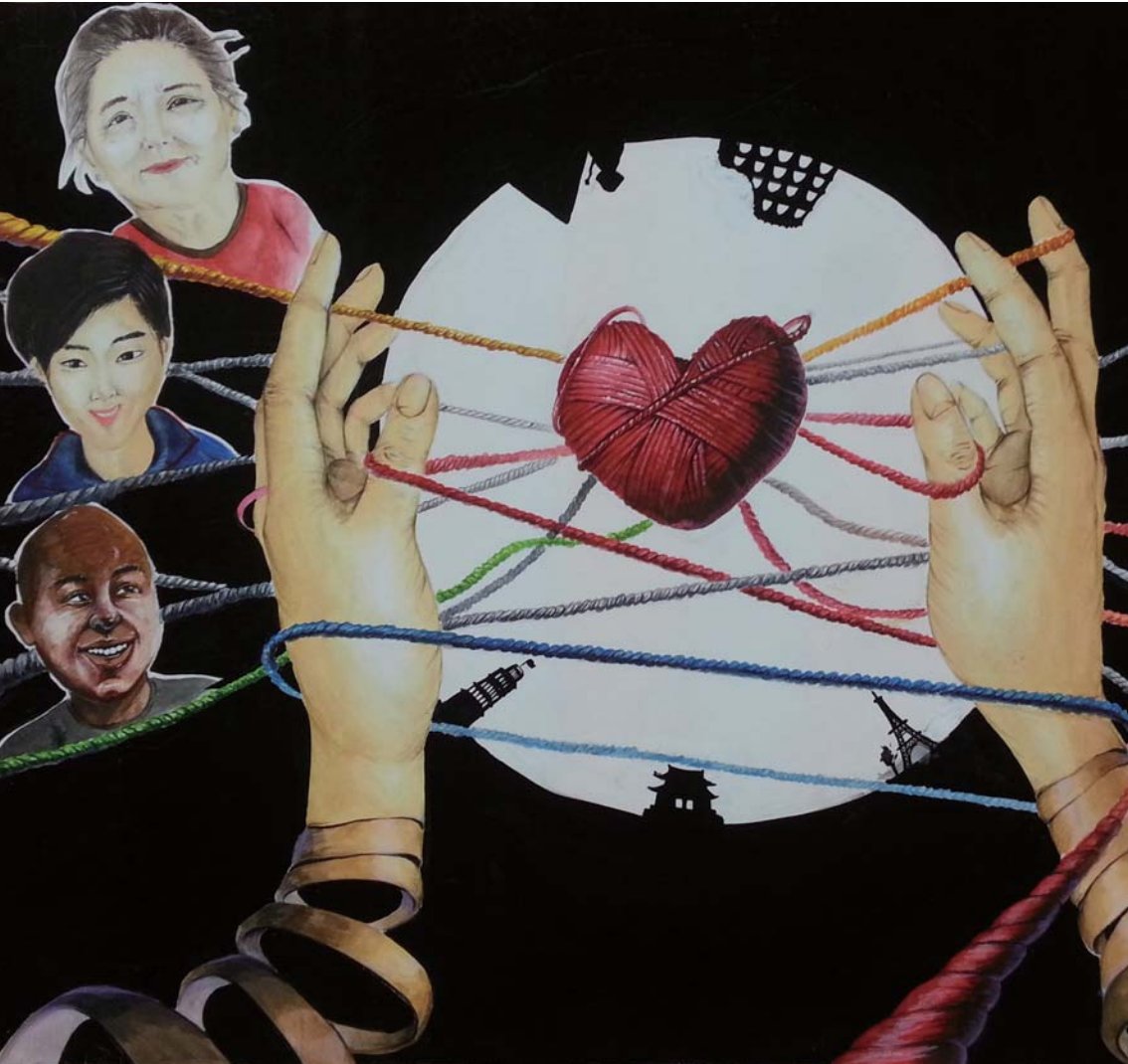
세계화(Globalization)는 서로 다른 사회와 국가들이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진입하는 연속적·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¹⁾. 세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경제부문(무역, 생산·투자 양식, 금융·노동시장)을 위주로 한 전 지구적 생산 구조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시장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적 측면의 통합이 강조되면서 경제적 세계체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대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1세기의 세계화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환경 등 모두가 하나의 지구적 울타리로 통합·동질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활동, 대중문화의 확산 등으로 지구가 하나의 생활단위로 바뀌고, 기존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지구촌의 통합과 동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계화의 흐름은 시민사회와 시민, 시민성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개별 시민들이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해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양성의 가치와 관용정신을 길러, 국가·문화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시민성의 개념과 시민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경계가 분명한 단위를 기초로 하는 개별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다면,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와 국내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시민’ 그리고 ‘시민성’의 역사성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State)’라는 상대적 존재성을 전제로 논의돼 왔다. 국가는 영토적 기반을 가진 강제적 조직, ‘주어진 영토



내에서 국민에 대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정당하게 독점할 수 있는 강제적 조직'이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는 국가의 대립 개념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사적 또는 자발적인 협정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생활 영역'으로 가정생활, 경제영역, 문화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보이게 된다.

- 첫째, 국가와 시민사회가 일치하는 단계,
 - 둘째,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는 단계(여기서 국가의 권력이 제한됨),
 - 셋째, 시민사회와 국가의 대립 단계(여기서 국가는 '조정자로서의 국가', '시민사회의 외적 형태로서의 국가'라는 의미를 지님),
 - 넷째, 시민사회가 국가를 흡수하고 확대되는 단계.
- 시민(Citizen 또는 Citoyen)의 개념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긴 인류 역사를 통해 두고두고 발전해 온 보편적인 개념이다. 시민은 신민 또는 국민 개념과 비교할 때 보다 명료해진다. '신민(Subject)'이 절대군주체제하에서 군주의 지배를 받는 신하라면, '국민(Nation)'은 근대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 구성원을 뜻한다. 이에 반해 '시민(Citizen)'은 사회의 주체인 동시에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를 의미한다. 시민성(Citizenship)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별 시민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행동 성향을 뜻한다. 시민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민주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의 총체를 의미하며,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나 세계화는 기존 국민 국가 중심의 정치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 인식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물론 세계화의 강력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의 국민에



©APCEIU/이연지

대한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는 여전히 국민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시민성의 필요성

세계시민의 개념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그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가능태'를 전제로 한다. 자칫 사해동포(四海同胞)식의 추상적 가치와 윤리를 강조할 경우 세계시민의 정체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시민사회와 시민성이란 개념은 탈냉전 이후 지구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으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자기발현(Autopoiesis)'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기원전 3세기 디오게네스가 도시국가 또는 그리스 시민 대신 자기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규정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스토아학파를 거쳐 계몽주의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려는 사상 조류들이 나타났다. 세계시민주의는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구성원들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주의의 개념적 역사성은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후 새로운 인식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경우 시민은 국민국가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내부에 있더라도 예속적이었던 신민들과 대비되는 경계 안의 주체를 의미했다. 국가는 배타적 경계 내의 구성원들에게 시민권 또는 국적을 부여하면서,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국가로부터 시민성을 부여받은 개인 역시 공적 영역인 국가와 사적 영역에서 전체의 발전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하나의 권력 주체 단위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화는 근대 국민국가 시대에 수립되었던 기존 정치질서에 변화를 가져왔고, 과거 지리적 경계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위상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노동, 자본, 상품, 기술, 정보, 이미지, 환경 등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 조직·교환·조정되는 양상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범죄·



©APCEIU / 김영빈

약탈·사기, 지구 차원의 환경 훼손, 다국적 기업의 비윤리적 횡포, 이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국가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 같은 문제와 긴장, 갈등은 점점 커지면서 지속화되고 있다. 이런 세계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역 차원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반드시 요청된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 국가의 관행은 약화되고, 개인의 삶이 특정 국민국가의 시민성 범주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면서, 지역적 국가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시민성이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베르사유조약 이후 국가는 지구사회를 이해하는 중심 틀이었으며, 특정 영토를 근간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조직체였다. 그러나 세계화는 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글로벌 공동체의 실현 욕구와 필요성을 점점 강화시켰다. 그 결과, 국민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단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것을 중시하는 기존의 국가적 시민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시민성의 개념이 요구되었다. 세계시민성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역·국가·세계 차원의 각종 분쟁을 대화 또는 타협과 같은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시민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

국내외 세계시민교육의

연구 동향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노력

유네스코는 일찍이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의 원리로서, 네 개의 기둥 즉 ‘알기 위한 교육’, ‘행동하기 위한 교육’, ‘존재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을 제시했다. 특히,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은 다원주의·상호이해·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타인들과 함께 공동과업을 수행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제공했다. 또한 2002년 지구위원회(Earth Council)가 발표한 지구헌장(Earth Charter)은 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주제로 ①공동체 생활에 대한 존중과 관심, ②생태적 통합, ③사회·경제적 정의, ④민주주의, 비폭력, 평화를 내세웠다. 한편 영국의 비영리단체 옥스팜(Oxfam)은 세계시민을 ①글로벌 이슈를 잘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②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③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렸다. 특히 I장에서 언급했듯이, 유엔의 교육 리더십은 2012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GEFT’를 통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했다. 기존의 MDGs와 EFA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계시민의식의 함양’ 목표가 GEFI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Post-MDGs 목표와 연계된 새로운 교육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리더십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유엔의 교육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향후 8년간 교육사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의 육성을 세부목표의 하나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도출하고 우수실천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2013년 9월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전문가회의>를, 같은 해 12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제1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2015년 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유네스



© APCEU



© APCEIU

코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연이어 개최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교육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주요 성장 동력인 청소년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수준에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실태 분석을 수행해 왔다. 세계시민교육 부문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관련 사업 내용과 유형을 요약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개별 국가뿐 아니라 지역 단위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등을 주축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 APCEIU



© APCEIU

〈표 II-1〉 세계시민교육 관련 기관의 사업 내용과 유형

기관명		교육명	교육대상	주요 내용	교육형태			
국제	비정부기구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 아태 국제 이해 교육원	국제이해 교육 교육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아태지역교육 (교사, 교사 훈련가, 교육 행정가 등)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가의 역량 강화	대상별·지역별·주제별로 특화된 연수 실시 및 후속활동 증진		
			국제이해 교육정책 연구	아태지역 국가 및 정책기구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정책회의, 지역 내 현황조사		
			국제교사 교류 프로그램	아태지역을 비롯한 지역별 현직 및 예비 교사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교사 교류 프로그램 실시	대상국 파견 및 현지 학교에서의 교사활동 실시		
		세계	캐네기 중동 센터	아랍국가 시민교육 프로젝트	아랍국가	세계시민교육의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연구	정책 연구	
		북미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국제교육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글로벌	21세기 역량 및 글로벌 역량	국제교육에 대한 연구, 훈련, 네트워크 제공	
		유럽	영국 문화원	커넥팅 클래스 룸	교사 및 학생	사회적 통합, 세계시민의식, 리더십	학교간 파트너십, 교사 전문성 양성	
	시민사회	남미	미주 가구 (OAS)	평화지도자 프로그램	멕시코의 이달고(Hidalgo) 주 고등학생	세계시민의식의 강화		
			유럽	옥스팜	청년 대사	청년	글로벌 이슈, 21세기 역량	청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교재 제공
			남미	세계시민 네트워크	아카데미 프로그램	고등학생 및 대학생	다문화, 국제사회, 교실 밖 지식	10~21일간의 연수
		아프리카	액티브이트	액티브이트	남아프리카의 청소년 및 청년	지역사회 및 국가의 변혁 및 혁신 선도	남아프리카 전역의 청년 네트워크 구축	
		민간	기업	HP	세계시민 의식	직원	기업의 세계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	윤리교육 세션, 비디오 시청, 글로벌 건강 운동 과제, 자원 봉사 프로젝트 등



©APCEIU/ 김은영



©APCEIU/Hayatullah Mehryar

기관명		교육명	교육대상	주요 내용	교육형태	
국내	공민교육 부문	유네스코 아태 국제 이해 교육원	교육가 역량 강화, 국제교사 교류 및 자료 개발	교육가, 학생 및 시민사회	세계시민교육 주요 주제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교육가 역량 강화 및 자료 개발, 국제교사 교류 프로그램	교육가 연수, 교육자료 개발 및 출판, 교사 교류 프로그램 실시
	시민 사회 부문	월드 비전	세계시민 교육 교원연수	현직교사	인권, 환경, 평화를 포함한 세계시민교육 전반	오프라인 연수
		굿네이 버스	세계시민 교육 - 찾아가는 나눔교육 (One Heart!)	초등학생	지구촌 현실 : 빈곤, 기아, 재난, 국제기관, MDGs	오프라인 - 학교 방문 온라인 - 동영상, 게임, 문제풀이 등
	민간 부문	포스코 교육 재단	글로벌 일류 시민 양성 행복한 학교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학교 재학생	공동체 의식, 사회 이슈 이해 및 참여의식 고취, 다양성 존중, 사회공헌 마인드	학교 재량으로 실시
		삼성	글로벌 투게더	한국 내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가족통합교육, 이중언어교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 통합센터교육 및 법인지원교육

* 출처 :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3> 및 자체 현황 조사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의 주요 특징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반적 합의에 기초한 ‘세계시민성’ 또는 ‘세계시민 역량’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최근까지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시민성 개념에 대한 불일치는 세계화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 단일국가의 영토 내에 한정된 전통적인 시민성의 개념에서도 문제시된 부분이다. 시민성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민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 APCEIU

최근 연구 동향을 종합해 볼 때, 세계시민교육의 연구 결과들이 지니는 특징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시민성(Citizenship)의 개념은 매우 논쟁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민성에 대한 여러 해석이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도 세계시민성을 정의하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정신,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는 지구촌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서’, 또는 ‘보다 구체적인 시민의 역할과 도덕적 의무에 기반한 세계시민의 지위’ 등을 의미한다.

둘째, ‘바람직한 세계시민’의 모습에 대한 다양성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마다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정의는 한국 특유의 독특한 사회적·역사적 환경(예 : 유교 문화적 전통, 식민통치의 경험, 남북분단 상황, 교육문화)에서 형성된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는 이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셋째,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의 연구 경향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는 해당 연구가 지리정치적·언어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서구 영어권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편향성은 세계시민성의 개념을 논의하는 학문의 장에 서구의 전통적인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민성에 관한 동양적 가치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시민성과 시민교육 연구에 있어서 탈식민주의적(Post-colonial) 접근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세계시민성의 개념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실천적 방법 또는 ‘교수법(Pedagogy)’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3-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핵심 역량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특징

세계시민성의 개념은 ‘민족국가를 초월한 시민의식’,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지구시민의식’(Planetary Citizenship) 등 여러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개념은 법적 지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서로의

연대감, 집단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능력 그리고 인류 공동 번영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학습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삼는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



출처 : UNESCO, GCED Infographic



©APCEU

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방법론에 관한 최근 논의를 집대성한 보고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간 이해교육 및 평화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변혁적 교육을 가리킨다.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논쟁적인 특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지지받아 온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표 II -2>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가지 핵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II-2〉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비교

전통적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학습자는 수동적인 수용자	학습자는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
기성세대의 가치·규범의 전수를 강조	변혁적인 교육
지식·내용 이해 중심적 교육	과정 중심적·문제해결 중심적 교육
주어진 학교 지식의 습득을 강조	참여지향적·실천지향적 교육
시민성에 대하여 배우는 교육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교육
단기적·공식적 교육과정 위주의 교육	평생교육적·다면적 형태의 교육

세계시민교육은 무엇보다 학습자(아동, 청소년, 성인)를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로 삼는 교육이다. 학습자가 국지적·세계적 문제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공정하고 관용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변혁적인(Transformative) 교육이다. 기성세대의 가치 체계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학습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끈다. 학습자는 주요 담론에서 제시된



©APCEIU/이강훈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소외되어 불평등을 경험하는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과정 중심적(Process-Oriented)’이고 ‘문제해결 중심적(Problem-solving Oriented)’ 교육이다. 단순히 ‘학교 지식(School Knowledge and Contents)’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필수 지식을 토대로 실생활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적’ 교육을 강조한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참여지향적(Civic Engagement)이며 실천지향적인(Action-oriented) 교육이다. ‘시민성에 대하여 배우는 교육(=Education ABOUT Citizenship)’을 뛰어넘어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교육(=Education THROUGH Citizenship)’에 해당한다.

다섯째, 세계시민교육은 평생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며,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모두를 통해 전개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역량

유네스코의 2014년 보고서 및 학계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인종·문화·종교·계급 등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공동의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태도,
- ② 보편적인 핵심 가치(예 :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차별 철폐, 관용) 및 글로벌 이슈와 경향에 대한 깊은 이해,
- ③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들,
- ④ 감정이입,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
- ⑤ 공감 또는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다양한 언어·문화·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기능들

(Non-cognitive Skills),

⑥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에 참여하는 행동능력

결론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기존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을 초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환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요원해 보이는 세계공동체 구현과제를 교육을 통해 도모하면서 현시대와 지구사회를 선순환 경로로 바꾸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지구사회의 실현은 이를 목표로 삼고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념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세계시민의 배출과 역할 수행은 존재 이유와 역할, 정체성이 분명한 국가시민의 단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과 세계 자본, 비정부기구와 민간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개인들까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III

Post-2015 교육의제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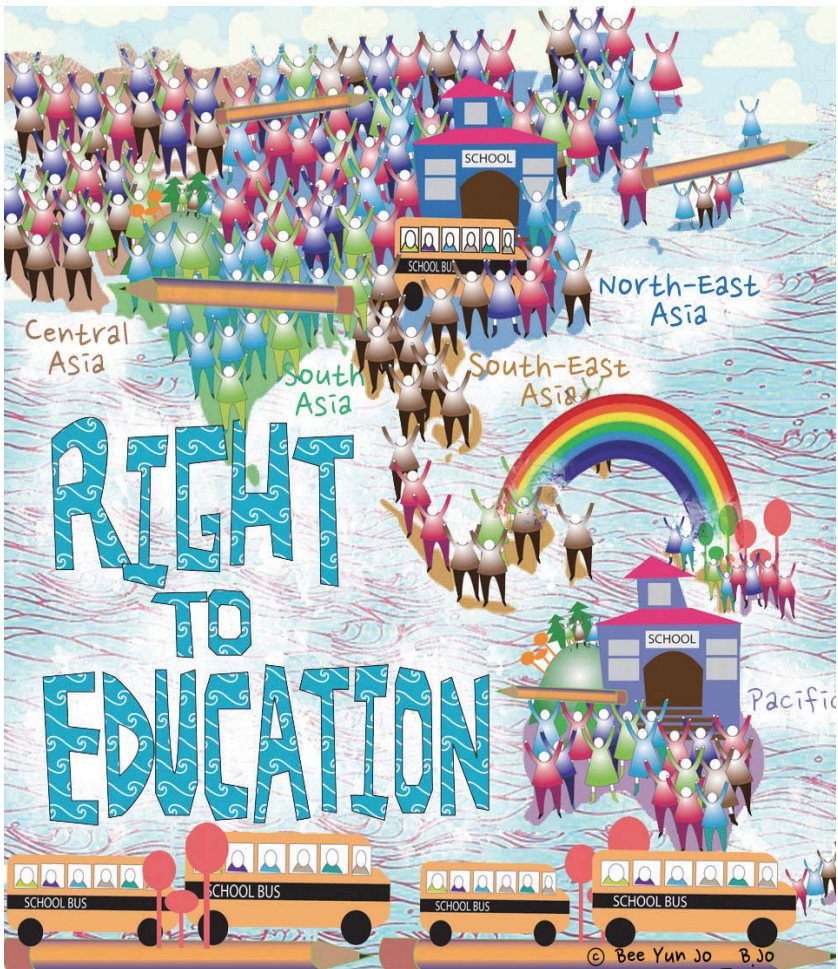
우리는 앞서 2012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GEF를 선언한 이후, 국내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높은
관심이 구체적인 국제사회의 교육의제로 구현된
〈2015 세계교육포럼〉의 등장 배경과 의의,
Post-2015 교육의제 수립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5 세계교육포럼〉 이후를 주도하게 될
‘Post-2015 교육의제’ 현황과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 담론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1 -

Post-2015 교육의제 수립의 방향과 원칙



© APCEIU / 조비연

2015년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유엔의 MDGs의 달성 시한인 동시에 유네스코 EFA 목표의 종료 시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MDGs와 EFA를 잇는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MDGs의 8개 목표를 약속한 대로 2015년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는 성찰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MDGs는 단순한 양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 최초의 사례이자, 이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행과 경험을 축적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 설정과정은 시작 단계부터 MDGs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왔다. MDGs는 설정 초기에 위로부터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 폐쇄적인 성향을 띠었다. 반면, 2015년 이후 개발목표는 수많은 국별·주제별 협의를 거쳐왔다.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구성에서부터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vote.myworld2015.org) 개설에 이르기



© APCEIU

까지 다양한 경로를 동원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은 목표를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20 회의>를 기점으로 MDGs를 승계하는 Post-2015 개발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압축되었다. <리우+20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열려 있는 포괄적이며 투명한 정부간 협의과정을 거쳐 글로벌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유엔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30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이 결성됐으며, 2014년 7월, 17개의 범분야적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실무그룹 제안서(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표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MDGs와 SDGs의 논의와 비슷하게 국제교육 분야에는 EFA와 Post-EFA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발의제는 유엔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교육의제에 관해서는 유네스코가 주도권을 발휘하여 태국 파타야 쯔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World Education on Education for All)>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채택했다. 또한 2000년까지 달성할 6개의 목표로 ①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대, ②초등교육 보편화 달성, ③14세 청년 80%의 기초교육 수준 학습 성과 달성, ④성인 비문해율 50% 감소, ⑤청년 및 성인 대상 기초기술교육 확대, ⑥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 확산·보급을 본 회의의 행동계획으로 제시했다.

쯔티엔 회의에서 채택된 여섯 가지 목표가 달성 시점인 2000년까지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두 번째 EFA 회의인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이 개최됐다. 전 세계 164개국 1,100여 명이 참여한 본 포럼은 쯔티엔 회의 이후 모든 이의 교육 달성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나아가 향후 15년간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수립했다.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은 2015년까지 달성할 EFA 목표로 ①종합적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확대·향상, ②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제공, ③모든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균등한 교육 및 생활기술 프로그램 제공, ④성인의 문해 수준 50%

개선 및 모든 성인들에게 기초교육과 계속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⑤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의 성불평등 철폐, 2015년까지 교육의 양성 평등 달성, ⑥교육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은 좀티엔 회의에서 설정된 목표에 양성 평등, 생활기술과 교육의 질에 대한 목표들을 추가했으며, 이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카르에서 채택된 EFA 목표는 1년 후 채택된 MDGs에 [그림 III-1] 과 같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그림 III-1] 모두를 위한 교육목표와 새천년개발목표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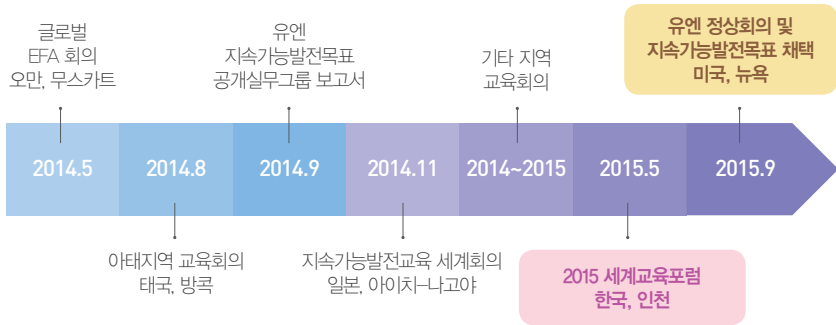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을 위해 EFA 운영위원회 (EFA Steering Committee, EFA SC)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의와 준비가 앞서 이루어졌다. 특히, 2014년 5월 50여 개의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대표, 사회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만의 무스카트(Muscat)에서 개최된 <글로벌 EFA 회의(Global EFA Meeting, GEM)>에서는 2015년까지 EFA 달성을 위한 세계 각 지역의 성과를 검토하고, 2015년



© APCEIU

이후의 교육의제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무스카트 선언 (Muscat Agreement)’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보장’이라는 1개의 대목표 아래 ①영·유아 보육·교육 기회 제공, ②기초교육 보급 확대, ③성인 문해율 증진, ④직업생활 지식·기술 습득, ⑤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⑥교원 확보, ⑦교육 재정 확대 등 7개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GEM은 EFA 종료 시점과 맞물려 <2015 세계교육포럼> 전까지 개최된 마지막 글로벌 회의였다. 여기서 채택된 무스카트 선언은 Post-2015 교육목표 논의에 가담하는 여러 유엔 기구에 소개되어 국제사회 교육계의 통합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ost-2015 교육의제 형성을 위한 전 세계 교육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인 <2015 세계교육포럼>이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지난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 이후 15년 만의 회의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이 다수 참석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회원국 장·차관 111명을 포함하여 167개국 약 1,500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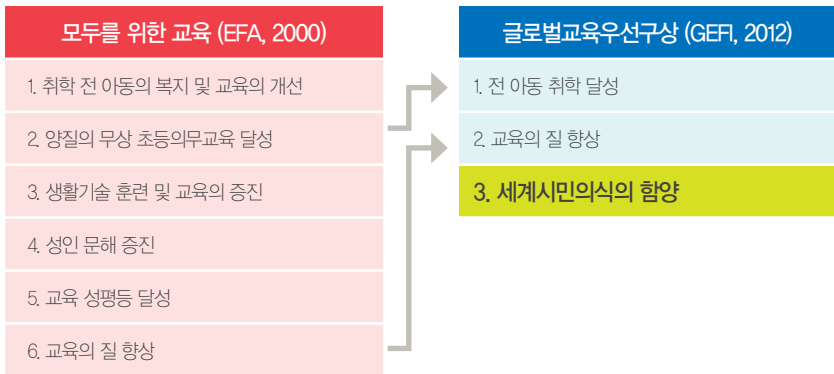
[그림 III-2] Post-2015 교육의제 형성과정

에서는 유네스코 회원국 교육장관들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전 세계의 새로운 교육 비전인 ‘인천선언’이 채택됐다. 새로운 교육 비전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진흥’하는 것으로, 선언문에는 유엔 개발의제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명시됐다. 이 선언문은 앞으로 2030년까지 회원국의 정부들에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안내하고 교육 관련 국제 기구들의 임무를 정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교육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은 2015년 9월 유엔 개발의제가 확정된 이후 2015년 11월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인천선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난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 기회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데 합의했다. 선언문에서는 기존의 모두를 위한 교육운동을 계승하여 9년의 초·중등 교육을 보장하고, 청년·성인들의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기회를 강조했다. 아울러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고등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약속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직업교육·고등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와 갈등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 세계시민교육이 선언문에 언급된 것은 기존의 교육 기회 보장에 관한 논의를 넘어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처음 명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상의 Post-2015 교육의제 형성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III-2]와 같다.

2-

Post-2015 교육의제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2012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GEFT를 발족시킨 이후부터다. GEFT의 3대 우선순위는 ①전 아동 취학달성(Put Every Child in School), ②교육의 질 향상(Improve the Quality of Learning), ③세계시민의식의 함양(Foster Global Citizenship)이다. 반 총장은 GEFT의 추진 간사(Executive Secretary)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이후 유네스코가 GEFT 추진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GEFT의 세 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세 번째 목표인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교육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나머지 두 가지 목표와는 달리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 [그림 III-3]은 기존의 EFA 목표와 GEFT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III-3] EFA 목표와 GEFT의 상관관계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있는 Post-2015 교육의제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무스카트 선언’이다. 무스카트 선언에서 의결된 7대 목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목표 5, 즉 ‘2030년까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 함양’이다.

2014년 9월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실무그룹 보고서에도 세계시민교육이 반영돼 있다. 2014년 3월에 열린 <EFA SC 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교육은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가 아닌, 독립적인 목표로 제정돼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은 SDGs의 17개 목표 중 세부목표 4.7에 포함돼 있다. 포괄적 교육목표 내용도 ‘모든 이에게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 Post-EFA 목표와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Post-EFA의 목표 5의 경우,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만을 명기한 반면, SDGs의 교육 세부목표 4.7은 세계시민교육 외에도 인권, 성평등, 평화, 문화다양성 등이 병렬적으로



© APCEIU

나열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s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세계교육포럼> 축사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 유치국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설정될 교육목표들이 세계의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해 "교육은 읽고 쓰고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21세기에 부응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인천선언'에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실천방법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세계시민교육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은



© APCEIU

2030년까지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추진해야 할 범세계적 교육정책목표가 되었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 세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SDGs를 채택할 때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한다면 2030년까지 유엔 차원의 전 세계 발전목표 중의 하나로 강조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 유엔과 유네스코의 Post-2015 교육 세부목표를 대조해 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글로벌 EFA 회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실무그룹 교육목표 비교

글로벌 EFA 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실무그룹
2014년 5월 12~14일, 오만 무스카트	2014년 9월, 미국 뉴욕
최상위 목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 보장	목표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5: 2030년까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혹은 포함하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 함양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 혹은 이를 포함하는 지식과 기술 함양
무스카트 선언 2014년 5월	Zero Draft 2014년 9월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3-

Post-2015

세계시민교육 의제 형성과정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CEIU)

대한민국 정부는 <2015 세계교육포럼> 유치국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한국발 교육 의제로 공고히 하고, 2015년 이후 세계시민교육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4년 9월 24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GEFT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2015년 5월에 제3차 세계교육포럼을 주최하여 향후 15년간 세계



©유니온



© D. Berkwitz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더 나은 세계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GCED)의 주요 지지국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이 새로운 교육목표의 핵심 내용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 박대통령은 지난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식 축사를 통해 “세계 모든 학습자들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통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시민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Post-2015 교육의제에 세계시민교육 의제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대표기관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바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다. 2000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국제 이해교육 증진을 통한 평화의 문화 구축'이라는 사명을 토대로 다양한 국내외 사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의 이론화와 실천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연구와 보급 과정에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2013년 9월 〈세계시민교육전문가회의〉를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외교부) 및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개최했다. 본 회의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첫 국제회의로서, 전 세계 세계시민교육전문가들이 모여 세계시민교육의 정의와 개념,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회의의 결과물인 〈세계시민교육 : 새로운 교육의제(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An Emerging Perspective)〉는 이후 세계시민교육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인용되는 중요한 유네스코 문서로 자리 잡았다. 뒤이어 유네스코



© APCEIU



© APCEIU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육가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분야 우수 사례들을 공유·보급하는 <제1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네스코 마하트마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원(MGIEP)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4년 5월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글로벌 EFA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공동으로 세계시민교육 세션을 조직·운영하여 무스카트 선언의 세부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ESD)>에서는



© APCEIU



© APCEIU

세계시민교육 관련 분과회의와 부대행사를 조직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아이치-나고야 선언(Aichi-Nagoya Declaration on ESD)’에 세계시민교육이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2015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또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될 Post-2015 교육의제와 유엔 SDGs의 연계 방안을 위해 2015년 3월에 유엔 본부에서 유네스코, 외교부, 유엔 GEFT 사무국과 함께 <2015 세계교육포럼 설명회 및 세계시민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은 극단적인 폭력과 편협함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5 세계교육포럼>이 이런 노력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개회사를 통해 유엔 GEFT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세계시민교육이, 16개 GEFT 핵심지원국(Champion Country)들의



© APCEIU

참여로 발전해 왔음을 설명하면서 특히 핵심지원국으로 한국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거론하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교육은 산술능력과 문해능력을 넘어 존중과 존엄에 기반한 문화적 소양 함양, 평화의 문화 구축, 사회·경제·환경을 관통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이런 가치와 목적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으로서 반드시 새로운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2015 세계교육포럼>이 열리는 동안에도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마하트마간디 평화 지속가능발전교육원(MGIEP)과 공동으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 학습’을 주제로 GCED/ESD 분과회의를 조직했다. 또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 국내외 실천 경험의 시사점 및 비전’을 주제로 <2015 세계교육포럼> 공식 사 전행사인 유관기관 국제포럼을 개최했으며, 세계시민교육 전시회와 세계시민교육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천선언’에 세계시민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탄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종 국제회의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유네스코와의 공동협력으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지침서인 <세계시민교육 : 학습주제 및 목표> 개발,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정보 허브인 <UNESCO 세계 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개발, 세계시민교육 평가지표 개발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Post-2015 교육의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CED Message Tree

As a global citizen,
I will use my time, energy,
and effort to guarantee the
freedom of women and
education for every child
- Manal Harrouche, Algeria

We have to be the
main agent of change,
not by standers
- Santiago Martinez, Colombia

The world needs more
peacemakers, healers,
restorers, and lovers
of all kinds
- Nalini Singh, New Zealand

We really wa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have a strong youth voice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Kather McFarlane, South Africa

IV

세계시민교육정책 방안 : 5대 핵심 정책



한국이 향후 국제의제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 교육의제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정책 방안으로 제시하는 아래의 5대 핵심 과제는 이런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수단이다.

성공적인 국제회의란 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들을 화려한 수사들의 잔치, 즉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 전문성을 가진 조직,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과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 등이 요구된다.

아래의 정책 방안들은 2013년 9월에 개최된 <세계시민교육전문가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도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의 실행을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정책적 지원, 교육과정 개발, 교사 훈련, 교육자료 개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청소년 중심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세계시민교육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정기적 포럼 개최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국제적 상황 그리고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정책을 정리했다. 먼저 이들 5대 핵심 정책을 소개한 다음 이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로 세계시민교육과 발전교육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파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연구



© APC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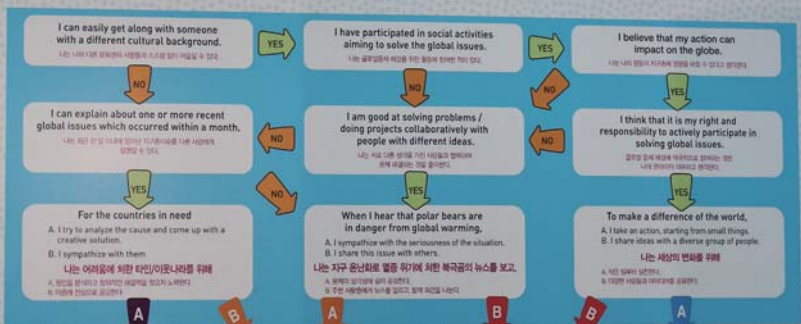
주요 사업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 역량 지표 개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 정책

What Type of Global Citizen Are You?

당신은 어떤 유형의 세계시민인가요?



You are an **Insightful Giraffe Type!**
당신은 멀리 보는 기린형 세계시민!

You are an **Empathetic Chameleon Type!**
당신은 공감하는 카멜레온형 세계시민!

You are an **Interactive Elephant Type!**
당신은 소통하는 코끼리형 세계시민!

You are an **Active Dolphin Type!**
당신은 실천하는 돌고래형 세계시민!

Insightful Giraffe
멀리 보는 기린

You are a global citizen who understands global issues and universal values with insight, like a giraffe seeing far into the distance with its long neck.

긴 목으로 멀리 멀리 볼 수 있는 기린처럼 당당한 자세로 다양한 배경으로 문제를 이해 할 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입니다.

Empathetic Chameleon
공감하는 카멜레온

You are a global citizen who respects diversity and differences, like a chameleon changing its color to match its surroundings.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세계시민입니다.

Interactive Elephant
소통하는 코끼리

You are a global citizen who interacts actively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and listens well to others like an elephant with big ears.

큰 귀로 잘 듣고 이해하는 코끼리처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줄 아는 세계시민입니다.

Active Dolphin
실천하는 돌고래

You are a global citizen who actively participates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local and global communities with ethical responsibility, like a dolphin swimming across the ocean.

바다 위를 활기차게 헤엄치는 돌고래처럼 남다른 자세로 지역과 세계를 함께 걱정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입니다.

수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시민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유사한 세계시민성 지표(Global Citizenship Index)를 개발하여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주시하는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지표(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dex)를 개발함으로써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성지표의 개발은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인지도,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지표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성과와 타당성을 평가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한다.

지표는 측정이 가능하고 정량적인 것들은 물론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성적(定性的)인 것을 포함하여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한 지표를 활용하여 참여 국가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및 세계시민교육사업의 성취도를 조사하여 격년으로 발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지표를 국가·지역별 인식과 현황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발전 정도 및 세계시민교육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 국제지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표 개발을 통해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각종 사업 효과 등의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는 양적인 기술(記述) 측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기술과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지표는 미시적인 것과 동시에 거시적인 것도 개발한다. 미시적인 지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적절성(Appropriateness)과 효과성,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 전체의 현황과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거시적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지표 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는 세계시민교육 추진의 방향성과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또한 평가는 기관 운영자, 외부 의사결정자(재정적 후원기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전문가들의 논의와 기존 문헌 및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수의 가능한 평가지표들을 수집한다. 1차로 수집된 지표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 통하여 지표들을 선정하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분석을 통해 시안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한 지표 시안을 활용하여 시범적 평가를 실시한다. 시범 평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인다. 지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적실성을 높인다.

세계시민교육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연구

세계시민교육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효과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 인류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제도적 차원, 지식·가치적 차원, 인적·비공식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 APCEIU



© UNESCO Bangkok

제도적 차원의 노력

① 국제적 핵심 네트워크로서의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세계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 기반과 세계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동 기관이 세계시민교육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② 세계시민교육 교육장관회의 및 유엔·유네스코 포럼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개별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협력·공조체제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고려할 때, 국가별 세계시민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전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세계시민교육 교육장관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 교육장관회의는 격년으로 개최하여 세계적 공동목표 달성 및 우호적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주최하는 일은 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의 대외인지도 및 국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정책 입안자, 실천가들이 함께 모이는 <세계시민교육 유엔·유네스코 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주요 세계시민교육 현황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목표 달성도 점검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전 세계적·지역별·국가별 기본 방향, 정책 및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이슈 발굴 및 실천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③ 대륙별 파트너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대륙별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허브 기관이 세계 시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각 대륙별 세계시민교육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륙별 세계시민교육 협력기관의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륙별 세계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은 물론 다양한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현존 기관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다. 동 기관의 노력과 실적은 국제적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동 기관을 활용할 경우 한국은 대륙별 세계시민교육 협력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주도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글로벌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가치적 차원의 노력

① 정책 애드보커시 및 자문 활동

여기에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각종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이 포함된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 정책회의와 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정책입안자와 시민 참여 유도 등을



©APCEIU/이강훈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관계자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협의도 필요하다. 이런 작업에는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세계시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권고사항을 방향성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담당자회의를 개최해 교육 추진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② 학술정책 연구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 연구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정책 개발과 지원을 위한 보다 응용적인 학술정책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이론·

실증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신(新)정책 모형의 개발, 세계시민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세계시민교육 학습·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③ 정보자료 허브,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운영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자료 허브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콘텐츠를 수집·분류·보급하는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GCED Clearinghouse)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양질의 검증된 자료를 모아 한군데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는 각국의 정보 교류가 촉진되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장이 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보는 전 세계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정책가, 기획자, 교과과정 개발자, 연구자, 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비롯해 일반 대중들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여러 언어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에는 문서뿐 아니라 시청각자료도 포함한 정책, 교수법, 학술논문, 교수학습자료 등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검색 기능은 영어뿐 아니라 유엔 공식 어로도 사용 가능해야 하며,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통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하여 한국어판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비공식적 차원의 노력

① 핵심 인력 역량 강화

핵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가, 교육 분야 전문가, 교사훈련가, 교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또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참조).

② 인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핵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세계시민교육 청소년/청년 교류 프로젝트 개발·적용 참조). 이런 인적 교류 과정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기대 효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평가 및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책 연구는 실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은 물론 교육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 2030년까지의 글로벌 교육목표로서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개선 전략 수립, 효과적인 사업 실행 등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지표 개발과 평가작업은 세계시민교육의 국제적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의 국제적 주도기관으로서 그 전문성을 심화하고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선도하게 되면 한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주도함으로써 인류공동체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의미가 크고 중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지표의 개발과 평가는 국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국제 네트워크의 발전은 더욱 훌륭한 지표와 정확한 평가, 모니터링 작업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 두 작업은 서로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교재 개발·보급

주요 사업

세계시민교육헌장 또는 세계시민교육선언의 제정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추진 이유와 목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헌장(Charter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또는 ‘세계시민교육선언(Declar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제정한다.

한국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등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담당할 기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1948)이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2001) 등에 필적하는 세계시민교육선언 또는 세계시민교육헌장의 제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제안하고 각국의 협력을 얻어 제정을 주도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허브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건국이념이며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널리 인류공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헌장 또는 선언의 제정작업을 추진하는 일은 우리 전통을 보편적 가치로 새롭게 해석하고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헌장 또는 선언의 제정과 반포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추진할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사업 기초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교육이념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1997년에 교육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교육기본법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시하면서 학습권, 교육의 기회 균등, 자주성, 중립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 운영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교육이념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DAC(개발원조위원회) 일원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 기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교육헌장처럼 자국의 발전과 자민족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한 개인의 헌신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도 부합하고 세계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선언 또는 헌장의 제정은 자국의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 기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용 교육과정 프레임워크(Framework) 개발

세계시민교육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연령별 세계시민교육 학습목표, 효과적 학습방법, 수업 모델 등이 포함된 세계시민교육과정



© APCEIU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령별 세계시민 교육 학습목표들이 수립되면, 이는 각 국가의 교육체제와 사회적 환경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프레임워크들이 국가별 프레임워크로 전환되는 과정 역시 효과적으로 사업화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고유의 내용을 갖는 별도의 교과과정이며서도 국어과, 사회과, 외국어과, 역사과, 지리과 등 다른 영역들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존 교과 및 학습 내용을 세계시민교육에 집중하여 심화시킨 교과통합방식으로 풀어내 적용한 후 ‘세계시민교육화’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 연구해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①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개발

세계시민교육용 교육과정의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교육, 젠더 관련 교육,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등과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지만 인지능력과 지식이 상당히 발전한 사람들을 시급히 교육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사실은 인지능력 성장과정에 따른 단계별 심화학습의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연령과 인지발달 단계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초급 및 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은 인지발달 단계 또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한다. 인지능력 등의 성장과정에 따른 단계별 심화학습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면 유아·초·중·고·대학 교육과정을 각각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과정의 개발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제도적 교육뿐 아니라 일반 시민 및 평생교육·노년층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과정은 세계시민교육의 전문가와 활동가, 초·중·고 교사 및 대학 교수, 교육전문가, 평생교육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서 시험 운영과 모니터링을 거쳐 보완과 수정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② 자유학기제 세계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한국의 공교육 진로에 위험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교과과정 발전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자유학기제는 한국의 공교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성공적 제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2015년에는 중학교의 70%,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전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 속에서 도입되었다. 자유학기제의 확산과 정착으로 공교육이 변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단시일에 내용적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수업방식을 탈피해 얼마나 다양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일회성 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이고 성찰적인 체험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시민교육은 이런 상황에서 자유학기제의 활용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도입하려는 다양한 접근법과 학습방법의 대부분을 이미 세계시민교육에서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APCEIU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는 통합교과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가, 당면한 현실 이슈들이 어떻게 다양한 층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개발



한 교재들이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이기도 하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현장 방문과 체험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사용해 왔다. 또 환경, 음식, 동화, 민담, 음악, 미술, 공연예술, 영화, 무형유산, 세계유산, 스포츠 등의 다양한 소재들을 학습에 활용해 왔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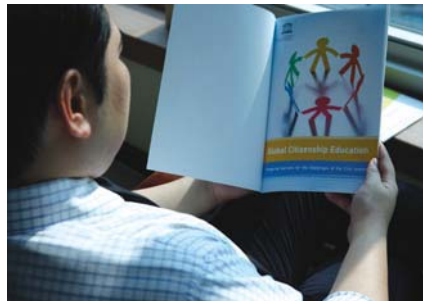
© APCEIU

해교육원이 개발한 교재 가운데 <우리는 지구촌시민>(2004)은 축구를 통해 문화의 차이와 세계화, 지속가능발전, 평화, 인권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맛있는 국제이해 교육>(2007)은 음식을 통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 프로젝트 학습에 필요한 주제 중심 교과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보다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강조하면서 경쟁보다 협조를 우위에 둔 것이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2004년 개발한 고등학생용 교과서의 제목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라는 것은 바로 교육문화의 혁신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가 창립 이래 사용해 온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도입, 교과과정과 학습방법을 개발해 왔고 교사들에 대한 직무 연수를 실시했으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연구해 온 교사들과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질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세계시민교육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전문가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양교육 또는 인성교육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전공학과를 대학 학부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성도 높지 않다. 그보다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방식을



©APCEIU/이강훈



©숙명여자대학교

참고하여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자격증 코스를 사범대학 내에 설치하고 교직 소양 과목의 형태로 예비·현직 교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 대학의 경우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대학의 일반적인 교양과목으로 실시할 경우, 그리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들이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간학문적 강의’를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이는 전공 이외에 ‘간학문적 프로그램’이 강하게 요구되는 오늘날의 대학 추세와도 부합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독립적 교육단위로서 이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재외동포재단과의 협력으로 강의를 개발하고,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방학 기간 중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난 4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세계시민교육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글로벌 시각과 책임의식을 가진 리더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등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첫째, 이를 통해 새로운 강좌 및 현장학습 등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는 학제적·융합적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학풍이나 기존 프로그램과 친화성이 크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가 학부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시도로서 서울대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하여 설립된 교육단위라는 사실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과의 성공적인 실험 성과를 국내 여러 대학에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세계 시민교육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④ 세계시민교육 석사과정 개설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의 개발 제안 및 대학에서의 강좌 개설과 연계하여 이 교육과정을 보다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젠더 등 세계화와 동반한 현시대의 다양한 도전과 난제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에서도 오랜 기간 다양한 직무연수를 수행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 학위과정을 마련한다면 세계시민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학문간 융합적인 성격이 강한 세계시민교육은 학부 단계보다 대학원 과정에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자유전공학부 등을 통한 새로운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개발, 학부 교육 혁신을 위한 실험적 교육 전개와 함께 석사과정의 통합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훈련과정이 학부 이후의 심화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세계시민교육이 타개하려는 지구촌 인류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세계시민 양성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교재 개발

세계시민교육의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여러 종류의 교재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의 경우 지금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성이 부족하여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현장교사, 활동가, 국제이해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 등으로 팀을 편성하여 다양한 형태와 언어로 교재를 개발하여 출판할 필요가 있다.



© APCEIU

기대 효과

첫째, 한국은 세계시민교육선언 또는 현장의 제안과 제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시민의식의 질적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G20>의 성공적 개최 이후, 한국 사회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진국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도와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OECD 국가 중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부가 세계시민교육현장 또는 선언을 주도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질적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선언 또는 현장 제정과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기존 사업을 재조직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선언 또는 현장 제정과 발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은 세계시민교육이 우리 교육이념의 매우 중요한 일부이며 핵심 가치의 하나로서 교육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학교교육의 보완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교교육은 경쟁체제 속에서 학습의 인지적 측면이 강조된 방식으로 짜여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육은 자칫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냉소주의와 무력감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런 교육 현실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는 보완적 프로그램으로 작용하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함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개별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구조적,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체험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중등교육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글로벌한 시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와 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요 사업

국내외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교육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직무연수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점 주제를 집중적으로



© APCEIU

조명하며,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연수과정을 개발·실행함으로써 수요자의 세계시민교육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역량 개발은 세계시민교육의 의의와 역사, 내용과 방법 등 각종 지식과 실무능력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의견과 경험의 교환과 문제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성 향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실을 넘어서는 교원의 능동적 역할과 역량의 증진이다. 교원의 연구능력과 교육과정 재구성능력, 학교 지원 및 교원 협업 증진 능력 등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운영 및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조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 훈련자 연수

세계시민교육의 확대를 위해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교사에 대한 직접 연수 외에도 교사연수전문가의 연수 등 교육자의 교육자에 대한 교육(Teaching Teacher's Teachers)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글로벌 허브 기관이 직접 수많은 교육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자의 교육자 훈련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교육자의 교육자 훈련을 담당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적 방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최신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반영하는 등 교육의 질적 유지와 향상에도 중요하다.

세계시민교육 교육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개발(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기부여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기에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전문가 인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 APCEIU

인증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고 취득 희망자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세계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의 확대 및 인증 희망자 증대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역할 변화가 요청된다. 교육자의 교육, 연수전문가의 연수와 이와 관련된 노력을 증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는 전문성과 능력이 입증된 기관들을 인증하고 공식기구화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연수의 질을 담보하고 응집력 있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양적인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히 병행한 인증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피교육자는 물론 교육담당기관의 비용과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향후 온라인 세계시민교육전문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 대상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개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정책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직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정부 정책 전반에 세계시민교육 관점을 도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계시민교육전문가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들은 퇴직 후 세계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대 효과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정책의 기대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질적인 향상 및 교육 전반의 양질을 제고한다.

둘째,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견과 정보, 경험을 교환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제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교육자의 교육자, 연수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온라인 교육과 인증제의 도입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다섯째,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제반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의 이념을 반영하는 한편 퇴직 후 공무원들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세계시민교육 청소년/청년 교류 프로젝트 개발·적용

주요 사업

세계시민교육 여권

청소년과 청년뿐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인 정부, 교사, 시민사회, 미디어, 기업, 국제기구,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성 사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 APCEIU



© APCEIU



© APCEIU

예컨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주축이 돼 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와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여권’을 개발·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학생과 교사, 일반대중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전 지구적 확산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합적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여권사업은 캠페인 형태로 진행해 온·오프라인이라는 두 가지 매체를 통해 개발·배포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여권사업은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개념과 주요 정책과제, 세계시민의 책임과 역할(지구적/국가적/커뮤니티)과 관련한 내용을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요소를 가미해 온라인상에 게임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란 개념을 재미있게 풀어내 학생과 교사, 일반대중의 이해를 도모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 한해 세계시민여권을 수여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확산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세계시민여권을 수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통합적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일깨우고,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보트

선박을 이용한 기항지 프로그램 및 선상 학습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스 보트(Peace Boat) 및 한국의 환경재단이 일본의 피스 보트와 협력하여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스 앤 그린 보트(Peace & Green Boat)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등 정규교육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구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집중적인 교육과 활동의 가능성, 기항지에서의 상륙 프로그램과 항해 중의 선상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 밀도 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인천을 출발하여 호주까지 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단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고 이후 다른 지역과 대륙을 방문하는 선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향후 세계 일주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선상에서의 교육시간을 밀도 있게 활용함으로써 정규 학기에 해당하는 교육이 초등, 중등, 고등 각급에서 가능하며 단지 청소년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년과 노년층을 포함하여 가족단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입시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 현실을 탈피하여 행복교육,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또 토론과 실습, 체험지향적 수업 운영에 적합한 세계시민교육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등을 시험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보트의 승선인원의 국적과 민족을 다양하게 구성할 경우 지역적·세계적 연계를 토대로 한 교육협력 활동도 가능하다. 탑승 인원의 인적 구성과 기항지 프로그램, 팀별 활동 등을 통해 남북통일과 동북아 분쟁 해소를 위한 평화교육에도 적합하다.

무엇보다도 조선(造船) 강국으로서, 장보고로 상징되는 해양국으로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며 ‘바다 여행’이 갖는 매력과 함께 ‘한 배에 탄 운명공동체’ 등의 함의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유스 레일 프로젝트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남한-북한)와 러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아세안 및 서남아시아 등을 잇는 철도를 활용한 국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시한다. 철도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 보트의 육상 버전이며, '철도'가 가지는 특성과 낭만적 성격을 활용하여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선박의 기항지 프로그램에 필적한 만한 철도역 소재지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은하철도 999>나 <어린 왕자>가 각 행성을 방문하여 독특한 체험을 하듯이 유스 레일 참가자는 각 정거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독특한 체험과 학습을 하게 된다.

세계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지원단(Youth Advocacy Group, YAG) 등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YAG는 GEFT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지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계 각국의 청년 18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 기회의 확대, 양질의 교육 제공,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목표와 내용은 유스 레일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유스 레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먼저, 열차가 통과하는 지역들 가운데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거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도시들을 선정한다. 정거장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인권운동과 인권교육, 환경운동과 환경교육, 다문화운동 및 다문화 교육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각종 문화관광, 체험관광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개발한다.

유스 레일 프로그램은 별도의 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할 수도 있지만 철도의 특성상 기존의 철도 노선을 활용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유스 레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인원을 특정 정거장에 내려놓고 이미 해당 정거장에서 <1박 2일> 등의 식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거장 프로그램을 수료한 다른 인원을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학습시설을 갖춘 객차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동할 때도 다양한 학습과 토론이 가능하다.

세계시민교육 사진교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던 아태지역의 각종 주제 사진전(꿈꾸는 부엌, 꿈꾸는 학교, 꿈꾸는 무늬 등) 및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 사진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세계시민교육 사진교실은 국제적인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특정국에



모여서 전문 사진작가로부터 기초적인 사진 촬영 기술을 습득한 후 문화다양성, 평화, 인권, 환경 등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로 사진을 촬영한 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토론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사진전을 준비하여 전시회도 갖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진전은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며 작가와 대상, 관객이 상호 작용하면서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교육자료 개발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PCEIU / 김태형



© APCEIU

세계시민교육 어린이 동화 교류

한·중·일 어린이 동화 교류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전 세계 주요 방송국과 연계하여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기획하여 운영한다. 한·중·일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는 세 나라의 초등학생 100명이 10인 1조가 되어,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 후에 조별로 동화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체험형 창작활동이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어린이들과 참여교사, 동화작가들이 순수 제작한 동화책을 참가국의 세계시민교육 자료로 발간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점차 해당 지역의 원활한 교재 개발과 보급으로 이어져, GEFI 목표 중 하나인 교육의 질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올림피아드, 잼버리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학습자일 뿐만 아니라 지지자이며, 교육자 및 리더로서 세계시민교육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5년 1월 유네스코는 <제2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에서 청소년 분과를 열었고, 이 세션에 참가한 29명의 청소년 대표들은 세계시민교육 의제 추진에 대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향후 세계시민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형식적으로 청소년 대표들을 참가시키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2015년 4월 유엔 GEFT 및 유네스코 마하트마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원과 함께 부산 금정구에서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Global Youth Advocacy Workshop on GCED)>을 공동개최한 바 있다. 본 워크숍은 세계 34개국 45명의 청소년 리더들이 모여 지역별 세계시민교육



© APCEIU

실천을 위한 옹호활동 전략을 수립한 청소년 주도형 워크숍이었다.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세계적 확산 및 국가·지역사회 맥락에 적합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올림픽아드, 잼버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대 효과

세계시민교육 청소년·청년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몇 가지 획기적이고 매력적인 사례를 통하여 다방면의 사업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제안한 시범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 보트나 유스 레일 등의 청소년·청년 교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는 상호교류와 현지 체험 등으로 독특한 심화학습을 제공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발전과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관광 및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들을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조직하면서 국제교류의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인 향상과 다변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진전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 인터랙티브한 방법과 오프라인 교류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국제교류 방식을 실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림책, 동화, 민담, 음악, 각종 무형유산(Intangible Heritage), 인생사, 문화관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소재와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글로벌 허브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청소년·청년 프로그램의 성공적 개발과 추진은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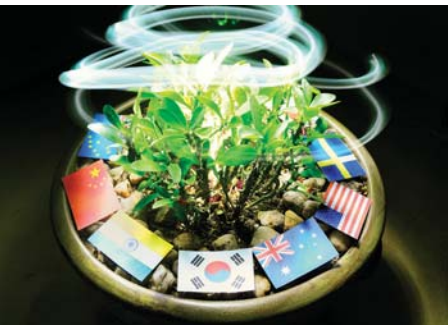
다섯째, 세계시민교육 보트나 유스 레일 프로그램으로 점점 참여도시와 기항지,



© APCEIU

정거장 프로그램을 늘려갈 경우 지역 관광 및 발전 계획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등 매우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특히 유스 레일 프로젝트는 '실크로드'라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북한 방문 기회 확대를 통한 개혁개방 촉진과 통일 노력 등 각종 실천적 전략에 기여한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APCEIU / 김지후



© APCEIU / 윤은교



© APCEIU / 이수민

5-

시민사회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적용

주요 사업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첫째, NGO, 교사단체, 직능단체 등의 세계시민교육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시민단체 등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국내외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각종 회의와 워크숍, 경험과 문제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기회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단체 등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각종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외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의 형성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활동가와 전문가의 교육과 연구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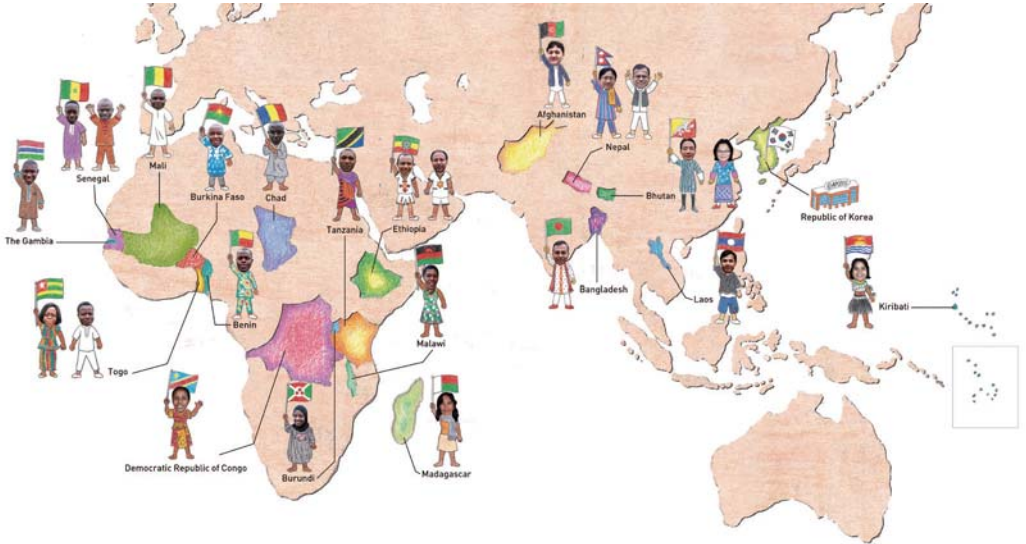
①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펠로십과 석좌교수 제도 지원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네스코와의 협력 하에 세계시민교육 펠로십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

하고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활동가를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개발과 상호이해에 기여하는 펠로십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한-유네스코 펠로십 프로그램(UNESCO-ROK Co-Sponsored Fellowships Programme)의 실행기관으로서 운영 노하우를 오랫동안 축적해 왔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주축으로 이런 펠로십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세계시민교육 분야 연구자, 실천가 개인 또는 단체, 조직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국가나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펠로십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파견 등 지속적인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수준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은 석좌교수 제도와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연구자 또는 실천가 등이



© APCEIU / 한태희 / 손미선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나은 역량을 기르고, 나아가 석좌교수와 같은 제도를 통해 깊이 있는 현장 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면 프로그램의 성과나 협력하는 기관 차원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펠로십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록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전체는 부분의 합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는 단순히 시민사회를 주도하고 구성하는 전문가나 활동가 등 개인 차원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NGO, 교사단체, 직능단체 등의 의사소통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APCEIU

즉, 개인적 차원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조직 수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들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상호파견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있고 경험과 역량이 축적돼 있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으로서의 파견 근무, 대륙별 대표기관 파견 근무 등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교류는 협의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기관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자체 평가, 내부감사, 외부기관의 평가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원에 대한 평가체계의 구축, 보상과 인정 프로그램의 발전, 정보 공유와 관리, 아카이브 구축, 의사결정 체계의 점검, 업무 분장 및 조직 구조 점검 등 일반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고려하고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참여 네트워크 구성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노년층까지 포함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정부나 학교, 전문가 또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등 글로벌 허브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NGO와 교사단체, 직능단체 등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① 일반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박물관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누구나 접근이 쉬운 박물관을 활용한 일반 시민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박물관과 같이 정규교육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물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간·문화·자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과 가치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공간이다.

박물관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세계시민교육에 다가설 수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②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제정

세계시민교육 국제상을 제정하여 양질의 세계시민교육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조직에 시상함으로써 그 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우수한 세계시민교육 연구와 실천을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켜 장려하고 격려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유네스코가 주축이 되어 관련 상을 신설한다면 보상의 규모와는 별개로 해당 분야의 연구자와 활동가, 교육가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세계시민교육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 제도를 마련하고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이미 자리를 잡고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유네스코 국제상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상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국제심사위원단의 구성 등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상 제정 시 여러 모로 참조할 만한 선례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일례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15년 이상 꾸준히 시상 이어지고 있는 유네스코 국제상으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이 회원국으로서 정부가 적극 동참한다면





세계시민교육 참여를 꾸준히 주도해 나가는 국제상의 제정도 가능하며 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③ ‘세계시민의 해’와 ‘세계시민의 날’ 제정

유엔 세계의 해와 세계의 날은 국제사회의 이슈 혹은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기간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치를 촉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957년부터 이 전통을 이어온 유엔은 120여 개의 세계의 날(International

Day)과 58년 동안 매해 새로운 주제에 초점을 둔 세계의 해(International Year)를 기념해 왔다. 세계의 해는 한 해에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국가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반기문 총장의 GEFI 이후 교육 분야의 최대 화두가 되었고 2015년 송도에서 개최된 <2015 세계 교육포럼>을 통해 전 세계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나아가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세계시민의 해'와 '세계 시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유엔이 정한 세계의 해 및 세계의 날을 계기로 유네스코 협동학교가 관련 활동을 전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시민의 해 및 세계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개인과 국가가 세계시민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의 문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 효과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은 정부나 학교,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개인적·조직적 역량 강화는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에 간접적이지만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학교와 사회의 경계는 물론 사회의 각 부문 즉 젠더, 계층, 연령,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연대와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가시적 성과를 예측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복합적이며 장기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세계시민교육과 발전교육의 통합적 추진

위에서 제시한 5대 핵심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기초로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세계시민교육과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통합적 추진은 세계시민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나 발전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세계시민교육과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 APCEIU

세계시민교육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발전과는 별 관련이 없으며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실용교육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때때로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자원이나 기술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부패와 차별, 구조적 폭력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세계시민교육은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기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위에서 제시한 5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시민교육과 발전교육의 통합적 추진을 국내외에 제창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합적 추진의 필요성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선진사회의 성숙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고민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의 통합 추진 제안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한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TVET)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적 추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허브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BEAR 사업 등 성공적으로 국제적인 직업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KRIVET 및 KOICA와 협력하여 사업구상과 모델 사업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발전과 빈곤의 퇴치는 MDGs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과 발전교육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사로 부상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시민교육과 발전교육의 통합 추진을 제창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적절한 선도사업들을 개발하여 한국 교육 ODA의 새로운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ducationforum

EDUCATION
2030

V

세계시민교육정책
추진 체제 및
정책 제언





오늘날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인지 역량에서 비인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GEFI를 기점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사회의 교육의제로 급부상했다.

이후 한국은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와 세계시민교육 애드보커시 활동, GEFI 핵심지원국에 가입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Post-2015 교육의제 반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한국 주도로 '인천선언'에 반영한 것은 한국의 다자외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2015 세계교육포럼>의 유치국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한국발(發) 교육의제로 공고히 하고, 2015년 이후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그 실행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시민교육정책

추진 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의 GEFT는 단순히 기존 국제사회의 교육개발의제를 환기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후 세계 시민교육은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의 주요 목표, Post-2015 교육의제 세부목표, MDGs를 이을 SDGs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



© APCEIU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이 정부, 국제기구, 학교, 학계, 민간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 유치국으로서 여러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정책의 응집성(Policy Coherence)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교육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국제교육의 제로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성과 전략 구상을 위해 개별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벗어나 국제적 차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시민교육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GEFPI의 실천을 위한 최초의 공식 회의인 <세계시민교육전문가회의(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를 2013년에 개최했다. 또한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유네스코 본부 및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과 지속적으로 공동 주최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해 왔다. 이런 연장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지를 발전시켜 한국이 세계시민교육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도약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 정부 차원의 접근법(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통해 수평적 협조와



© APCEIU

정책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계시민교육은 관련 기구와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정책 로드맵을 예시해 보면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세계시민교육정책 로드맵

세계시민교육정책 로드맵을 달성하고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민간기업, 미디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모두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정책 추진 체제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예시해 보면 [그림 V-2] 및 <표 V-1>과 같다.



[그림 V-2] 세계시민교육정책 추진 체제

〈표 V-1〉 세계시민교육 관련 기관 역할 예시

기 관		역 할
한국 정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 유네스코 관련 정부간 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의제 설정 참여 • 세계시민교육 기금 및 센터 운영을 위한 APCEIU 지원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對) 유엔/ 유네스코 GEFI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섭활동 • 핵심지원국 국가활동 교섭 참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육청 활동 • 교육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증진 지원
	세계시민교육 전담기관 (APCEI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허브로서 실행계획 수립 및 기금 운영 • 세계시민교육 학술정책 연구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세계시민교육정책 애드보커시 및 자문 • 세계시민교육 정보자료 공유 및 네트워크 허브
국제기구	UN GEF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FI 이행 추진 • GEFI 사무국 운영 및 유네스코와 협력 • GEFI 핵심지원국 국가활동 지원
	UNE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FI 실행계획 수립·추진 •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논의 주도 • 세계시민교육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APCEIU와 협력 •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회원국 협력
	APCEI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허브로서 실행계획 수립 및 기금 운영 • 세계시민교육 학술정책 연구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세계시민교육정책 애드보커시 및 자문 • 세계시민교육 정보자료 공유 및 네트워크 허브
GEFI 핵심지원국	국가별 지정 협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국가별 실행계획 수립 및 협력기관 지정 • 세계시민교육 실행계획 이행 참여
학계/ 연구공동체	대학, 연구소, 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학술연구 및 전문가 네트워크 참여 •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설·운영 •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시민사회	국내외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의 세계시민교육 이행 참여 • 세계시민교육전문가 네트워크 참여
민간기업	글로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사업 후원



2-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APCEIU

제도 부문 :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세계시민교육 전담 글로벌
허브로 육성 지원

먼저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과 같은 역량을 갖춘 전문기구를 세계시민교육 전담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세계교육포럼> 축사에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세계시민교육 중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2013년 4월에 개최된 제19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4년 2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방문, 2015년 1월 <제2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포럼>, 2015년 3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등에서 세계시민교육 증진에 있어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통해 한국 정부는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Post-2015 교육의제 논의에서 주도권 확보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 국제·지역기구 등과의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의 리더십을 확보할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추진 체제는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사회 인식의 흐름에 따라 최근 주요 교육의제로 부상하긴 했으나, 이미 여러 명칭(예 : 국제이해교육, 국제교육 등)하에 국내외에서 실행 되어 오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관련 기관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의 정부 및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존의 기관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015 세계 교육포럼> 유치국으로서 앞으로 세계 교육발전을 위한 핵심의제 설정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전문성뿐 아니라 국내외적 입지를 고루 갖추고, 한국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을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위의 요건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사업뿐 아니라 국내의 세계시민교육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이다. 또한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이자 세계 유일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전담 국제기구이다. 활동 수행에 있어 기능적이고 법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을 증진·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확보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2010년 2월 유네스코가 실시한 국제평가에서도 회원국들로부터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2012년 10월 제19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치엔 탕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가 사업결과 보고에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성과를 언급하면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치하한 바 있다. 이처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점차 사업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세계시민교육 허브 기관으로 육성하여,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파트너십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교육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해 선도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 전담 허브로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역할을 예시하면 <표 V-2>와 같다.

<표 V-2> 세계시민교육 전담 허브로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역할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코어	대륙별 세계시민교육 협력기관 지정, 각 기관을 통솔·조정하는 글로벌 컨트롤 타워 역할
정책 애드보커시 및 자문	정책회의, 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한 정책입안자와 시민 참여 유도
학술정책 연구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실증적 기반 확보 및 신(新)정책 모형 개발,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학습 스탠더드 개발, 세계시민교육 학습·평가지표 개발
핵심 인력 역량 강화	교육정책가, 교육 분야 전문가, 교사훈련가, 교사, 일반 공무원, 청소년, 언론인, 시민사회관계자,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및 세계시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운영
정보자료 허브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세계시민교육 관련 콘텐츠 수집·분류·보급하는 클리어링하우스(Clearinghouse) 기능

예산 부문 :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예산 지원 확대 및 세계시민교육 특별기금(Special Fund) 조성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을 국제협력·공조체제 속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특별기금인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펀드' 조성을 제안한다. 아울러, 현재 한국 정부가 국제부담금의 형태로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의 대폭 확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펀드는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 및 협력의제(예 : GEFI, EFA 등)를 정책적·사업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현장 수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 데 중점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펀드를 통해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과 참여 의지를 공고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펀드는 선진국을 위시한 공여국의 기금 참여 공약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의 파트너십을 공고화해 기금 조성 채널을 다각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기제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펀드 이사회는 정부 차원의 공여국 대표들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OECD DAC 회원국), GEFI 핵심지원국(Champion Countries), 개도국 대표,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삼성,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 재단 등 민간기관 대표들로 구성하며, 매해 2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향후 10년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세계시



© UNESCO Bangkok



© UNESCO Bangkok

민교육 주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뿐 아니라 세계시민교육 의제 실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동 기금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활용한다면 유엔·유네스코 차원의 다양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추진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시설/인프라 부문 :

세계시민교육 체험숙박형 연수관 건립

세계시민교육을 한국발 교육 의제로 공고화한 이후 이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협력체제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세계 시민교육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확산과정의 전개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참여형 학습공간이 될 세계시민교육 체험숙박형 연수관의 건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체험숙박형 연수관은 연수기능, 체험기능, 전시기능, 숙박기능, 교육기능, 정보화기능, 네트워크 기능 등을 포함하여 연수관 내에서, IV장 세계시민교육 정책 방안 : 5대 핵심 정책에 제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으로서 한국 정부가 기관활동을 국제적·지역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조약 제2058호 제10조(정부의 기여)에 따르면,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의 행정과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건물·연수시설, 연구개발·교육훈련·교수자료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종합적 기능을 갖춘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연수관 건립을 통해 동 기관의 세계시민교육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5 세계교육포럼> 핵심 후속사업 수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수관은 각종 전문가회의 및 국제행사 개최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흥미



롭고 효과적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국제 분야에서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체험배움터로서 연수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세계시민교육 관련 전시기능과 자료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아카이브 기능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글로벌 교육의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도 삼을 수 있다.

사업 부문 :

세계시민교육사업 개발·강화

세계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맡은 전문기관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관련 현황을 검토해 보면 현재 학계, 연구기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국제 및 지역사회의 교육공급자들이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이 보유한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 지구적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이슈인 문화다양성, 평화, 인권, 빈곤, 환경과 같은 영역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나 대상의 필요와 특징에 따라 각자 중점영역을 달리하는 경향은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의 주목표인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인식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향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에 관련한 사업과 프로그램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통합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장기적 로드맵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담기구의 선정과 지원이 시급히 요청된다. 세계시민교육 담당 전담기관의 부재는 그동안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이 서로 중첩되거나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불합리성을 낳았다. 세계시민교육 전담기구는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세계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제적·지역적 정책 개발의 논의에서부터 연구 진흥, 현장사업 기획 및 실행,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협력체제 구축 등의 다각적이고 종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시급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국가 간 혹은 지역·국가 내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UNESCO AS-

Pnet)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프로그램 시행도 중요하지만 세계시민의식 함양 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을 포함하여 사회와 국가 그리고 나아가 국제차원의 교류와 협력체제가 공고히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네트워크가 결여된 세계시민



© APCEIU

교육은 그 실천적 효과가 낮아지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세계시민교육이 미래 글로벌 교육의제로 정착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지구적 교육의제로 새롭게 제시된 세계시민교육이 주요 교육의제로서 세계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와 정부를 중심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부문 :

세계시민교육 전문인력 확충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시민교육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효율적·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특별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인력자원의 대폭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적 자본 확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세계시민교육 분야에서 지적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내적으로는 행복교육, 인성교육, 평화교육 강화에 이바지하여 국내 교육 현안 타개 및 차별화된 글로벌 교육정책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교육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APCEIU

참고문헌

Abstract

참고 문헌

- 강규원·오정훈(2015). 우리나라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 성과. **중등교육연구**, 63(1), 1-32.
- 강순원(2014). 국제이해교육 맥락에서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제15차 연례학술대회**, 19-33.
서울: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교육부(2015). 2015 세계교육포럼 공식 폐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보도자료**, 5월 21일.
- 김석수(2011).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현대적 쟁점과 칸트. **칸트연구**, 27, 151-182.
- 김성수(2007). 세계시민사회이론의 비교분석: 자유주의적, 맑스적, 구성주의적, 사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41-74.
- 김용신(2013). **글로벌 시민교육론**. 파주: 이담.
- 김용주 외 역(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서울: 오름.
- 김중훈(2000). 세계교육포럼과 21세기 과제: GNP 6% 교육투자 실현 각국에 촉구. **교육마당 21**, 2000년 10월호, 122-125.
- 김중훈·김다원·김용주 외(2013). **시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 매뉴얼 개발**. 서울: 교육부.
- 김중훈·이양숙·엄정민·정경화·이지홍 외(2015).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 만나다**. 서울: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김지현·손철성(2009).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시대와 철학**, 20(2), 93-126.
- 김진희·최정운·박환보·안해정·서기준(2014).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희 · 차윤경 · 박순용 · 이지향(2014).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2015 세계교육회의(WEF 2015) 의제 형성 연구.**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뉴스시스(2014.9.25). 박근혜 대통령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기조발언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25_0013191467&cID=10301&pID=10300에서 2015. 8. 11 인출.
- 박수연(2014). Post 2015 시대의 글로벌시민교육.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제15차 연례학술대회, 305-316. 서울: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 박수연(2014). Post-EFA, Post-2015 시대의 개발교육. **개발교육**, 3호, 1-16.
- 박순용 · 김종훈(2013). **2015 세계교육회의 핵심후속사업 타당성 검토연구(미발간).**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변중현(2006). 세계시민성 관념과 지구적 시민성의 가능성. **윤리교육연구**, 10, 139-161.
- 설규주(2001).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시민교육연구**, 32, 151-178.
- 성경룡(2001). 세계화의 달레마. **한국사회학**, 35(2), 29-57.
- 손경원(2013). 세계화의 양면성과 세계시민주의의 전망. **윤리교육연구**, 30, 273-298.
- 양해립(2014).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권 -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4, 423-450.
- 연합뉴스(2015.5.19). 박근혜 대통령, 세계교육포럼 축사. http://ytn.co.kr/_pn/0301_201505191508561029에서 2015.8.11 인출.
- 오유석(2013). 세계시민주의의 기원과 의미: 헬레니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도덕윤리와 교육연구**, 41, 73-95.
- 이규영(1994).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한국정치학회보**, 28(2), 633-665.
- 이규영(1995). 세계화의 이중성. **新亞細亞**, 2(3), 77-108.
- 이희용(2013). **글로벌 시민정신.** 서울: 연경문화사.

- 임천순 · 서혜애 · 장혜승 · 조우진 · 김희웅(2013). 2015 세계교육회의 추진전략 및
국내외 EFA 네트워크 구축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정우탁(2015).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전문가 간담회, 31-36.
서울: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의실.
- 정우탁 · 지선미 · 김지은(2013). Post-MDG/EFA의 새로운 변수:
세계시민교육. 국제개발협력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조대훈(2013). 행복교육실현을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개선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최종덕(2014). 글로벌 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 *시민교육연구*, 46(4), 207-227.
- Bowden, B. (2006). Civil society, the state, and the limits to global
civil society. *Global Society*, 20(2), 155-178.
- Clark, J. (2011). Civil society in the age of crisis. *Journal of Civil Society*, 7(3),
241-263.
- Cogan, J. J., Morris, P. & Print, M. (eds.) (2002). *Civic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ase studies across six societies*. New York:
Routledge Falmer.
- Cohen, J. L. & Arato, A. (1994).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 Davies, I., Evans, M. & Reid, A. (2005). Globalising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que of 'global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1), 66-89.
- Davies, L. (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 58(1), 5-25.
- Deviren, F. & Babb, P. (2005). *Young people and social capital*.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Earth Council (2002). *National counci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01. San Jose, Costa Rica: Earth Council.
- Helve, H. & Bynner, J. (eds.) (2008). *Youth and social capital*. London: The Tufnell Press.
- Kumar, K. (2008). Civil society, globalization, and global civil society. *Journal of Civil Society*, 4(1), 15–30.
- Kymlicka, W. & Norman, W. (2001). Citizenship in culturally diverse societies. In Kymlicka, W. & Norman, W. (eds),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1–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H. Y. (2009). Global civil society: Challenge to citizenship and democracy? *세계지역연구논총*, 27(2), 33–54.
- Lee, W. O., Grossman, D. L., Kennedy, K. J., & Fairbrother, G. P. (eds.) (2004). *Citizenship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Concepts and issues* (277–288). Pokfulam Road, Hong Kong, China: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re.
- Oxfam (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Oxford: Oxfam.
- Pak, S. Y. (2013).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oals and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 Seoul: APCEIU.
- Parker, W. C. (2009). *Teaching democracy: Unity and diversity in public lif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Parmenter, L. (2011). Power and place in the discours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9(3–4), 367–380.
- Reid, A., Gill, J. & Sears, A. (eds.) (2010). *Globalisation, the nation–state and the citizen: Dilemmas and directions for 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 London: Routledge.
- Ritzer, G. & Atalay, Z. (eds.) (2010). *Readings in globalization: Key concepts and major debates*. Oxford: Wiley–Blackwell.

- Sassen, S.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 Scholte, J. A. (2007). Civil society and the legitimation of global governance.
Journal of Civil Society, 3(3), 305–326.
- Steiner–Khamisi, G., Torney–Purta, J., & Schwille, J. (2002).
*New paradigms and recurring paradoxes in education for
citizenship: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xford:
Elsevier Science Ltd.
- UNESCO (2000). *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 for All:
Meeting our collective commitment adopted by the World
Education Forum including six regional frameworks for action*.
Paris: UNESCO.
- UNESCO (2013).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
Outcome documen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oul, South Korea.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41/224115E.pdf>
- UN (2012).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New York: UN.
- UN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4).
*Introduction and Proposed Goals and Targe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Retrieved January 6, 2015 from [https://sustainabledevelopment.
un.org/content/documents/4528zerodraft12OWG.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4528zerodraft12OWG.pdf)
- UNESCO (2014). *2014 GEM final statement: The Muscat Agreement*. Paris:
UNESCO.
- UNESCO (2014). *Draft concept note for the WEF 2015*. Paris: UNESCO.
- UNESCO (2014). *Draft outline of the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Post–2015*. Paris: UNESCO

-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aris: UNESCO.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7/227729E.pdf>
-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 UNESCO (2014). *Aichi–Nagoya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UNESCO.
- UNESCO (2015). *Draft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 2030: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UNESCO
- UNESCO (2015). *Incheon Declaration: Education 2030: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UNESCO.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Deepening democracy in a fragmented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trieved from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reports/263/hdr_2002_en_complete.pdf

Abstract

Since the 1990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ronted with many challenges such as social structural changes due to rapid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zation, low birthrate, and diplomatic conflict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which are not sufficiently addressed by existing citizenship education anymore.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strongly calls for a paradigm shift on Korean citizenship education. In response to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proposes a policy plan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to improve Korean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Education for Happiness" and to support the concept of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as a new education agenda for the post-2015.

By closely observing the ongoing demands for fundamental change caused by globalization on the nature of citizenship, citizenry and civil society, this paper reviews concepts, history and the recent research trends in and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global civil society, citizenship and GCED. According to the findings, GCED can be defined as an effort to establish a global community creating a positive virtuous cycle through education.

The paper especially highlights the growing importance of GCED within

the new education discourse, which shifted its emphasis more on acquiring non-cognitive skills than cognitive ones, through analyzing the post-2015 global education agenda sett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etting processes which includes the outcomes of the World Education Forum 2015. In addition, it points out that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has contributed to the leading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GC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Therefore, APCEIU is see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GCED nationwide and worldwide.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leadership on the GCED agenda, establishing a systematic strategy is necessary. The five core tasks necessary for setting up the strategy include: 1) Situation analysis on GCED, policy research and an establishment of a global network; 2)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GCED curriculum and learning materials; 3)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GCED specialist training programme; 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GCED youth exchange project; and 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GCED capacity building programme for civil society. When it comes to carrying out these missions, it is critical to make sure that GCED and development education go together.

In conclusion, as the host country of the World Education Forum 2015,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establish a long-term and sustainable policy road map in collabo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government offices in order to continuously promote GCED for the post-2015 and consolidate it as a Korea-led education agenda. A model 4-step plan which consists of stages such as: 'Planning and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GCED → Implementation of GCED policy and building global partnerships → Pre-

liminary evaluation of GCED outcomes and policy revision → Dissemination of GCED implementation achievements’ is suggested in the paper. It is also important for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ademia, civil society, media, parents and all related stakeholders to cooperate as partners in order to accomplish such road map.

Also, policy proposals for the advancement of GCED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system-wise, a specialized agency like the APCEIU should be designated and brought up as a global hub of GCED so that it can work as a control tower in charge of the promotion of GCED and its partnerships. Second, budget-wise, setting up a ‘global fund for GCED’ and increasing the budget amount for APCEIU is needed for further and sustainable promotion of GCED. Third, in the aspect of infrastructure, building a GCED training centre where training participants can be accommodated and participate in a more intensive experiential training is necessary to stabilize and efficiently implement GCED programmes. Fourth, programme-wise, a GCED specialized agency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the field has to develop and carry out related programmes and projects in a systematic way. Fifth, in the area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cruiting more professionals who are able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GCED programmes according to the new GCED expansion plan is required.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ISBN 979-11-956142-0-2

2015년 9월 8일 1판 1쇄 발행

연구진 한 경 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 중 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이 규 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 대 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 지 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 전문관

제작대행 디자인 프리즘 (02) 2264-1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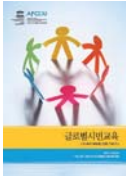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구로동)

TEL 02) 774-3956

FAX 02) 774-3957

I GCED 자료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세계시민교육,
선생님을 만나다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UNESCO Clearinghous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osted by APCEIU



| 〈2015 세계교육포럼〉 유치국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설정될 교육목표들이 세계의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 모든 학습자들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을 통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시민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식 축사 중에서 -

